군 사령관급 주요 지휘관 초청 오찬

여러분을 믿고 소신을 가지고 정부를 이끌어 가고 있다. 저를 믿고 따라 주십시요. 한국의 장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비관적인 전망들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을 지키면서 끈질긴 역량을 보여준 민족

한국 국민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곡절과 사건을 거쳤지만 엄청난 성취를 이뤄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나라를 빼앗긴 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역사는 두 번에 걸쳐서 5백년의 왕조를 가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세계사에서 이런 예가 드뭅니다.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거나 호령한 적은 별로 없지만 자기 중심을 지키면서 끈질긴 역량을 보여준 민족입니다. 근래 들어서는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민족의 기운이 확산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세계 환경의 변화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자신감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물론 비관적 전망처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국민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대통령, 정부, 군, 국민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밝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희망,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자신감을 잃으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집행하더라도 국민들이 자신감과 희망을 잃으면 일어설 수 없고 설사 일시적으로 정책이 잘못되더라도 우리 국민의 자신감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대한민국의 장래와 군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군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 기구개편이나 인사의 변화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회기강, 공직기강, 군 기강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바뀌면 크게 기구개편이나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 공무원의 자신감, 안정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큰 변화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되도록 안정된 조직 속에서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누구든지 자기의 노력과 결과가 연결될 수 있다는 신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동안 몇몇 분들이 도중하차를 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일인데 특별히 의도되거나 기획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사고방식과 문화가 바뀌게 되고 이러한 것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장치자금에 관한 한 신기록을 세웠다고 자신을 했습니다.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연한 사건이 겹치면서 단호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열어놓고 보니까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 간부들이 도중하차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전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억울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국민들의 기준이 달라져서 우리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후배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질서를 넘겨주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나갑시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긴장하고 경계하는 것과 아울러서 긴장 그 자체를 풀어버려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재조정되고 이라크 파병이 이루어지고 용산기지 이전이 이루어지는 등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판단들은 큰 틀에서의 정치적 결단인데 이런 결단은 정부와 대통령에게 맡겨 주십시요. 이런 결단의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장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남북관계도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긴장하고 경계하는 것과 아울러서 긴장 그 자체를 풀어버려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장성급 회담이 열렸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군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면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디까지 신뢰하고 어떤 것을 또 불신해야 하는지 그 한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장관을 중심으로 법, 군율, 명령에 따라 잘 대응해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군은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은 군을 믿고 흔들림 없이 새로운 상황에 잘 대처

최근 청와대와 군의 갈등이라고 하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군과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군과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에 흔들리지 말고 군은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은 군을 믿고 흔들림 없이 새로운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오찬 중 국방장관이 의문사위 조사와 관련해 군 지휘관의 명예와 자존심을 존중하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한 데 대해) 당연한 얘기입니다. 군 지휘관의 자존심과 지위에 맞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오히려 과거 문제가 됐던 일들을 스스로 밝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과거 문제가 국민들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군과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가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오히려 과거 문제가 됐던 일들을 스스로 밝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 조직으로서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한번씩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해방을 맞으면서 그 이전 역사가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군사정부 시절의 잘못된 역사가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필요한 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이런 문제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결단을 할 때 새로운 신뢰가 싹틉니다. 과거를 능동적으로 결단한 독일과 그렇지 못한 일본의 차이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국방부 문민화와 관련된 언급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장기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민화 이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군 스스로가 합심해서 국방개혁을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